

# 불교-가톨릭 만나 새 지역문화 펼친다

##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성장 템플스테이'

홍법사 잔디마당에서 한바탕 벌어진 물놀이로 신이난 청소년들의 표정들이 마냥 해맑다. 흐뭇한 웃음으로 쳐다보는 대정 스님, 윤희동 신부, 김혜마누엘 수녀의 모습은 낯선 듯 낯설지 않게 한 쪽의 그림을 만들었다.

불교와 가톨릭이 손을 잡고 부산·경남 지역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모두 함께 Grow-Up 성장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7월 25일~26일 홍법사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한 템플스테이를 연 것이다.

한화 S&C의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불교와 가톨릭이 종교간 벽을 허물고, 사회통합과 공동선을 지향한다는 점이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입시경쟁, 학교폭력, 스마트폰, 게임중독 등에서 벗어나 템플스테이를 통해 자아존중감 향상은 물론 청소년기의 바람직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며 "불교, 가톨릭 혹은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해 종교간 문화의 벽을 넘어 화합과 사회통합이라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전했다.

김지인 학생은 "아빠 어디가'에서 템플스테이 하는 것을 봤어요. 무척 궁금했는데 해보니 낯설지만 재밌어요. 발우공양은 좀 지저분하게 느껴졌는데 막상 해보니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가톨릭 시설 공부방 어린이  
홍법사 1박 2일 템플스테이  
발우공양 체험 등 '홍미진전'  
내원정사·범어사도 진행**

며 소감을 전했다. 빛둘레 지역아동센터장 김혜마누엘 수녀는 "아이들의 가장 큰 숙제는 발우공양과 108배에 대한 두려움이다. 다행히 108배가 없고, 발우공양 체험을 의외로 진지하고도 흥미롭게 도전해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7월 25일~26일 홍법사에서 부산·경남 지역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모두 함께 Grow-Up 성장 템플스테이' 행사를 진행했다.

보는 눈빛들을 보니 기뻐했다"며 함박웃음을 머금었다. '모두 함께 Grow-Up' 템플스테이는 부산 홍법사를 시작으로 △내원정사 8월5일~6일, 8월7일~8일 총 2회 △범어사 8월13일~14일 등 연속

해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가톨릭 복지시설의 공부방과 지역아동센터 아동과 청소년 12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지역사회가 프로그램 운영을 맡아 진행된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 "평화와 상생 이끄는 감동의 행사 만들자"

### 한반도평화대회 행사개요 발표

9월 27일 부산 아시아드경기장에서 대대적으로 개최되는 정전60주년 한반도평화대회의 본대회 윤곽이 드러났다. 한반도평화대회 운영위원회(총행위원장 자승, 상임운영위원장 수불)는 지난 7월 23일 범어사 주지실에서 한반도평화대

회 본대회 행사개요를 브리핑했다. 본대회는 정전60주년이라는 시의성을 특화시켜 한국전쟁 참전 21개국을 상징하는 21개의 천으로 그려온 드를 장식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위로와 경의', '화해와 상생', '미래와 희망'이라는 대회의 취지와 불교의 세계관을 형상화한 18M의 대형 연꽃원형무대를 중심으로 총 63m의 대형무대로

잠입한다. 본대회 주행사장인 아시아드 경기장과 식전행사가 진행 될 UN기념공원을 생중계를 통해 공간적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출연전에는 다문화가정 자녀로 구성된 레인보우합창단, 성악가 폴 조즈, 인순이, 바비김, 김건모 등이 참여하고 사회는 박칼린, 총감독은 국악인 김영동 씨가 맡았다.

상임운영위원장 수불 스님은 "스님 불자들이 하나 되어 한반도 평화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 한반도 위기를 평화와 상생으로 이끄는 감동을



한반도평화대회 운영위원회는 7월23일 범어사에서 본대회 행사개요를 브리핑했다.

주는 대회를 이끌어 내지"고 전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 "나눔통로... 함께 행복"

### 7월 25일 삼광사 힐링광장 출범

부산 삼광사(주지 무원스님)는 7월 25일 지관전에서 찾아가는 자비나눔 봉사단체인 '힐링광장'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지 무원 스님을 비롯, 이현승 신도회장 김석조 시의 회장, 이영환 부시장 등 시민불자 1천여명이 함께 했다.

힐링광장 상임대표로 추대된 무원 스님은 "말과 행과 마음으로 각자가 가진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자신의 여건에 따라 어려운 이들을 찾아 돕고, 꿈과 희망을 나누는다면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힐링광장이 앞장서 실천하는 단체가 되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공동대표 이현승 국회의원도 개회사를 통해 "힐링광장은 고 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도움과 나눔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삼광사는 2013년 2월 1일부로 힐링사찰을 선포 다문화 가족 돕기, 세계종교평화운동, 무료급식지원, 힐링새소폰합주단, 시민들을 위한 문화특강 등 대사회 운동을 펼쳐왔다.

각 계의 요청과 실천을 위한 구체적 단위가 바로 '힐링광장'이다. 새로이 출범한 힐링광장은 각 분야별로 도움을 주는 순수한 사회복지활동을 전개하는 단체로 문화, 예술, 법률, 다문화, 실버, 어린이, 청소년, 청년, 국제, 긴급구호 활동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집단과 일반 회원들이 재능기부와 봉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부산 삼광사는 7월 25일 자비나눔 봉사단체 '힐링광장' 출범식을 개최했다.

### 캠페인

##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 사찰의 전선 지중화가 시급하다

사찰의 경관을 해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도 덜 거슬리려 얽여있는 전선이나 통신선 그리고 콘크리트로 만든 전신주는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지상에 노출된 변압기나 고압개폐기는 태풍이 오면 문제를 일으켜 정전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며, 화재로 연결되는 경우도 흔하다.

때문에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에서는 이미 전선과 통신선 그리고 변압기나 고압개폐기 등을 지중화해서 지금은 경관적으로도, 정전이나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찰에서는 이러한 전기와 통신 설비에 대한 지중화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스님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

니다. 지금까지 전기나 통신설비에 대한 지중화는 지자체와 한국전력공사가 공사비를 50%씩 부담해서 시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고 보니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자체의 문화재 보유사찰에 대한 지중화사업은 관심은 있어도 시행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당해사찰에서 이러한 사업을 자체적으로 이루어내는 것은 많은 예산 때문에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실정이다.

최근에 국회에서 여러 의원들이 전선과 통신선 그리고 전신주 등을 지중화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지중화작업이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 되어

전 국토가 경관적으로도 아름답고 다양한 재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도 지중화를 위한 예산을 부담하게 되어 형편이 어려운 지자체의 경우에는 그동안 생각만 가졌던 숙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현 정부에서는 문화융성을 4대 국정기조로 선정하고 문화융성위원회까지 구성하면서 한국문화의 융성을 이루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문화의 융성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선조들이 이룩해놓은 문화를 잘 지키려는 노력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수많은 문화재가 소장되어 있는 사찰을 다양한 재해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문화재를 온전히 지켜내는 것도 문화융성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과제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올해도 우리나라에는 많은 태풍이 올 것이라는 예보가 있다. 모든 사찰의 전선, 통신선의 지중화는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는 지금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사찰의 전선, 통신선 및 전신주는 경관상이나 재해예방차원에서 반드시 지중화해야 한다. 경상북도 ○사찰

# 碧巖錄

전 5권

## 화두 참구의 길잡이! 깨달음의 길을 찾는 이들을 위한 선 수행의 필독서! 드디어 5년 만에 재간되다!

원문에 토를 달고 번역하고 주와 해설을 붙인  
**벽암록 완역판**

공안집의 최고봉, 선종문화의 총결산 《벽암록》, 최초의 완역본! 석지현의 명쾌한 해설로 만나다.

- 원옥근 저·석지현 역주 해설 신국판 | 145,000원(세트)

**석지현 역주 해설본 《벽암록》의 특징**

- ① 국내 최초 《벽암록》 완역 해설본!
- ② 수시·분칙·착어·평창·송·송각어·송평창을 모두 번역하고 해설한 책!
- ③ 벽암록 전문(全文)의 원문 수록과 현대 작업 완료!
- ④ 벽암록 네 개의 이본(異本) 대조!
- ⑤ 벽암록 100칙 공안 하나하나마다 활구(活句, 참구할 부분)와 사구(死句, 이해할 부분)를 입일이 구분하여 제시한 책!
- ⑥ 장장 10년에 걸친 역주 작업, 출판기간 3년!
- ⑦ 벽암록 속어 낱말사전 완성!

**8월 초 출간 예정!**

무비스님의 **《서장-이것이 간화선이다》**

(벽암록)과 함께 간화선 교과서의 생벽이라 할 수 있는 《서장》, 무비스님의 간결하고 명쾌한 해설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8월 초 출간 예정! 예약판매 중. 사전 예약 시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더운 여름, 마음의 휴식을 주는 책을 선물하세요.

**탄허**

시대의 선각자 탄허 큰스님의 생애와 오대산 불교 이야기

■ 지현 스님 지음 | 264쪽 | 13,500원 | 무선(신국판)

생애이 흥미도 배워지지 않는 탄허 큰스님의 가르침 그리고 스님을 품은 오대산 불교 이야기 (탄허 허공을 삼키다)는 스님의 원력과 가르침, 업적을 되살려 미래의 꿈과 좌표로서 한국불교 발전의 방향으로 삼을 수 있는 나침반과도 같은 책이다. 스님의 생애와 시대정신과 함께 오대산의 역사와 문화도 소개하고 있어 탄허 스님이라는 큰 스님을 품을 수 있었던 오대산의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숫타니파타를 읽는 즐거움**

보경 스님의 친절한 해설

■ 보경 스님 지음 | 376쪽 | 15,000원 | 무선(신국판)

부처님의 생생한 육성이 담긴 한 구절 한 구절이 삶의 지혜와 지미를 열어 준다. 소박하고 쉬운 일상의 언어로 이루어져 있어 종교를 뛰어넘어 모두의 가슴에 깊이 와 닿는 진리의 말씀을 만날 수 있는 최초의 불교경전(숫타니파타), 《숫타니파타》 원전을 통해서 근본적인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지고, 보경 스님의 친절하고 자상한 해설을 통해 마음의 위안을 받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 당당하고 힘차게 살아갈 힘을 충전하게 될 것이다.

**버리고, 비우고, 낮추기**

무아·무심·하심의 행복론

■ 정승석 지음 | 232쪽 | 10,800원 | 무선(4×6판)

행복의 법칙! 무아·무심·하심, 나를 버리면 정말 행복해진다? 우리는 무지 때문에 행복이 아닌 것을 행복으로 착각하여 그것을 얻고자 노력한다. 버리는 것이 많을수록, 버리는 강도가 클수록 행복감은 줄어든다. 그렇다면 행복의 미결도 간단하다. 버리는 것을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다. 《버리고, 비우고, 낮추기》 무아·무심·하심의 행복론은 부처님 말씀에 근거하여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나를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면 어떻게 행복해지는지 다양한 사례를 들어 일깨워 주고 있다.

민중사 **요구입 문외** | 서울시 중구구 수송동 58번지 부산위보빌딩은 1131호 민중사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홈페이지 www.minjoksas.com 이메일 minjoksabook@naver.com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injoksa 농협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

Tel. 02)732-2403~4 **민중사**